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5호 [루게 제23297호] 주체99(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무역상 리룡남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량만길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평양시의 책임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년말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원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12월 7일공장에 새로 건설된 위생용품분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1,000여㎡에 달하는 분공장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에 결실히 필요한 위생용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큰 위생용품생산기지이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은 지난해 10월 공장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모든 생산공정이 CNC화된 현대적인 위생용품분공장을 일떠세우고 질 좋은 여러가지 위생용품을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분공장의 기술적특성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생용품분공장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최신식설비들로 장비



된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분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주련이 늘어선 최신식설비들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위생용품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질 좋은 위생용품을 더 많이 공급해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

정신을 지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그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일리와 공원화된 공장구내를 보시고 종업원들이 뜨거운 조국애, 공장애를 지니고 공장안팎을 훌륭히 꾸린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가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살기 좋은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날을 따라 번모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능력이 큰 분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위생용품생산에

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것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라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같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우리의 경

공업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이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분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공장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생용품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해서는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는 동시에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공장에서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과학화함으로써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위생용품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공장의 로동계급이 애국적인신성을 발휘하여 위생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건설된 여자양말직장을 현지도하시였다.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꾸려진 여자양말직장은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능력이 큰 현대적인 양말생산기지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과 군인건설자들은 연건축면적이 3,000여㎡에 달하는 양말직장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여성들의 긴양말, 무릎양말, 양말바지를 비롯한 각종 양말을 생산하는 최신식 양말직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여성들의 양말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 공장의 연혁을 들으신 다음 제작작업장과 가공작업장, 제품검본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최신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된 양말생산기지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양말직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군인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위생용품분공장과 여자양말직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이신 우리 군대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색깔고운 갖가지 양말들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생산을 부단히 늘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여자양말직장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우리의 과학기술은 또 하나의 최첨단을 자랑스럽게 돌파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첨단기계들을 훌륭히 창안제작한 평양기계대학 연구사들과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양말직장이 건설된 결과 우리 녀성들에게 모양고운 각종 양말을 더욱 풍족히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복중시켜 풀여왔다고 하시면서 일고 쓰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며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양말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직장은 최첨단 설비들로 장비된 조건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양말을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양말생산에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공업제품에서 포장과 상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포장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소비자의 심리에 맞게 상표도안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양말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 질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선 보통강백화점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완공된 또 하나의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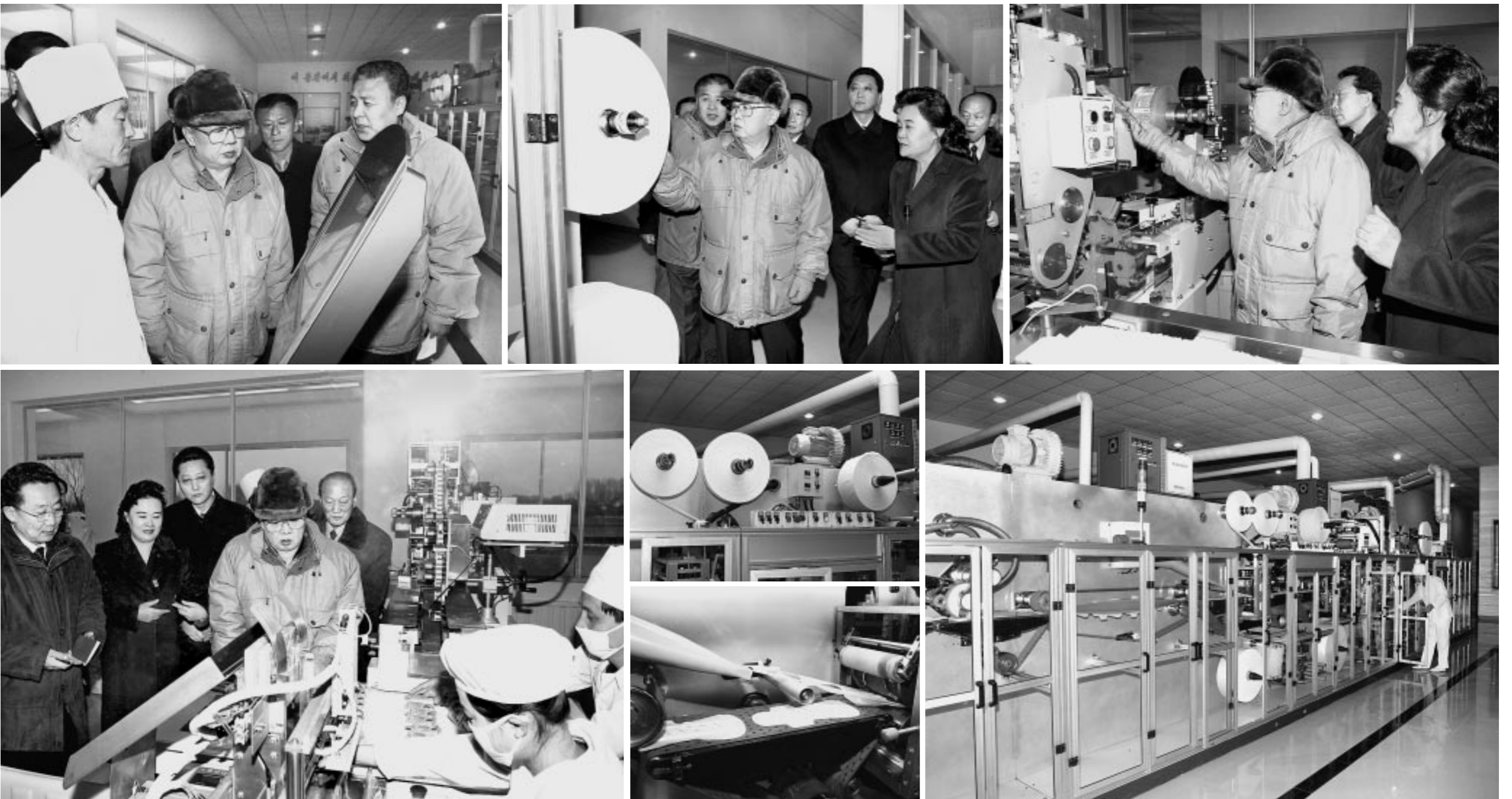
연건축면적 9, 200여㎡에 달하는 보통강백화점은 상품입고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정보화, 수자화를 실현함으로써 봉사에서의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꾸려진 최신식상점이다.

보통강백화점이 완공된 결과 수도시민들에게 의복과 신발류들, 가정용품과 일용잡화들, 학용품과 문화용품들, 식료품들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수도건설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화점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상품진렬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평 양 시 의 경 공 업 공 장 들 과 새 로 건 설 된 보 통 강 백 화 점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2 면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백화점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화점의 층층마다에 정결하게 꾸려진 진렬장과 진렬대, 진렬도구들을 비롯한 최신식설비와 비품, 매장들을 가득히 채운 갖가지 상품들을 보시고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가 마련되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보통강백화점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된 백화점은 나라없던 지난날 눈물의 강, 원한의 강으로 불리우던 보통강이 노동당시대에 와서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었음을 뚜렷이 증시해주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보통강백화점과 같이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상점들과 식당을 비롯한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보통강백화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상업정책의 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은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상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상품공급사업을 진행하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품을 제때에 팔아 주어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업부문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자면 이 부문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업전략을 바로세우고 봉사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상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올바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인민들의 요구와 구미, 기호에 맞게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통강백화점에서는 필요한 상품들을 제때에 보장하는것과 함께 상품진렬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렬은 공간을 리용하여 조잡해보이지 않으면서도 인민들이 백화점을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드림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봉사기지의 하나인 보통강백화점의 전체 봉사자들이 혁명성, 당성, 로동계

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시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국애민의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며 온갖 로고를 다 바쳐가고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평 양 시 의 경 공 업 공 장 들 과 새 로 건 설 된 보 통 강 백 화 점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시의 경공업 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자

대안천선 유리공장, 강서약수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대안천선 유리공장과 강서약수공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강양모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서 일군들, 공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대안천선 유리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당위원회 비서 김성남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강철유리직장을 건설하고 특수유리와 질 좋은 각종 유리제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직장이 설계로부터 시공, 기술장비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졌으며 생산전망이 대단히 크고 실리있는 유리

제품생산기라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충분히 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강서약수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지배인 림선화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있는 이당하고 정갈한 작업장들과 CNC화된 흐름식생산장에서 힘있게 생산되어나오는 약수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앞으로는 애국심과 뜨거운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특수유리제품들을 개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직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 좋은 유리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관리, 열화도 관리 등을 잘하는것과 함께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제고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만반으로 돌려 생산을 더욱 장성시킴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질 좋은 유리들을

충분히 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강서약수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지배인 림선화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있는 이당하고 정갈한 작업장들과 CNC화된 흐름식생산장에서 힘있게 생산되어나오는 약수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앞으로는 애국심과 뜨거운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특수유리제품들을 개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령군

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약수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인민 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약수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며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포장용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의 위생문화환경을 더 잘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이롭난 강서약수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줌으로써 공장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열기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개건된 평양밀가루공공장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평양밀가루공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과자직장, 밀가루직장, 효모직장 등의 생산건물들이 개건되고 파쇄기직장, 통합자동화실이 새로 꾸러졌으며 대규모변속생산공정의 CNC 공업에서 현형을 일으키고 식료품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총속에 개건된 평양밀가루공공공장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정덕동지,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공장과 편관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평양밀가루공공공장 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최영림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평양밀가루공공공장 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전체

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밀가루공공공장을 찾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을 개건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현대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다고 감사문을 강조하였다.

감사문은 당의 전투적과업을 과감한 심장에 받아안은 대외건설지도국 건설자들과 공장의 종업원들, 일군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감사문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전진반을 비롯한 여러 대일용공업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공장과 편관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평양밀가루공공공장 현대화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최영림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평양밀가루공공공장 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전체

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평양밀가루공공공장 현대화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공장을 선진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CNC 화, 무균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대규모식료품생산기지로 전면시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당의 식료일용공업상의 준공사에 이어 평양밀가루공공공장 지배인 서세철, 대외건설지도국 산하단위 국장 류춘룡,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호가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이고 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진 뜻깊은 올해에 평양밀가루공공공장이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되어 준공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경제개혁명령을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밀가루가공품들을 더 많이 보내 줄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2.16경축 국제준비위원회 결성

2011년 2.16경축 국제준비위원회가 11월 27일 로씨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상크트-

페테르부르크시의 의원 엘레나 바비치나, 위원들로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까자흐스탄, 몰도바의 정계, 사회계, 학계, 단체인사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제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과 주제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1년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과 주제사상을 연구보급, 선진하며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 성과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승고한 정신세계와 높은 애국적열의의 발현

각 지 일 군 들 과 근 로 자 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성은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형성발전되었으며 오늘과 같은 승고한 높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승고한 정신세계와 높은 애국적열의를 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날이 가고 해가 서늘수록 더욱 높고 있는 바에서 발휘되고있다.

보통구역 높은거리 2동 28인민반에서 사는 최상봉 로인은 지난 16년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변함없이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있는 그는 몸이 불편할 때에도 어버이수령님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다고 하면서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관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천개의 판도리도구를 마련하여 만수대혁명사적지관리소에 기증하였다.

사리원철도분구 김일성화강김일화산관리회 최철남동무도 지난 25년간 사리원시에 조조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과 교양마당관리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고있다. 그는 해마다 많은 판도리도구를 만들어 사리원시혁명사적지관리소에 보내주었으며 국가적절과 기념일마다 자식들을 앞세

우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관리사업을 성의껏 만들어 보내줌으로써 혁명사적지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로부터 정말 쉽지 않은 동무라고 존경담이 불러우르기도.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사람들이기때문에 평양시 양어판리국 대동강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을 깊은 감동을 받은 박경남동무는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념궁전을 하에 금어어울이 옥실거리에 갈 결심을 가지고 10여년째 온갖 지상과 열정을 다 기울여왔다. 그렇게 정성다해 기른 3만 5 000여마리의 금어울을 운하에 놓아줌으로써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공민적양심을 바쳐가고있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을 따라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백암평동무들은 순찰도중 불붙는 살림집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뛰어들어 배두산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집주인들과 집세간을 희생적으로 구원해내었다. 보통구역 인민보안서 아예단위 일군인 강경성동무도 지난 10월 생명의 위업을 무릅쓰고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배두산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위협에 처한 어린이를 구원하였다.

신의주기판차대 기관조사 강승일동무는 사물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물에 처한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지난 8월 압록강지구에 무더기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로 철차운행이 중단되어 기관차가 멎어있을 때 그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물치는 물살과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에 맞아 온몸이 찢기면서도 희생적으로 여러명의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강성대국건설기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들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김종성, 안태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열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를 더 잘 받들어 나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2005년부터 《우리 공창원공기록부》를 만들어놓고 대건설투쟁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군인들에게 많은 원호물자들을 넘겨주어 크게 고무하였다.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정동광, 리세련동무들은 종업원들과 함께 인포관방을 복구 도와주어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인포관방에서 자재부족으로 석탄생산이 걸려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수 없게 된 그들은 탄광일군들을 찾아가 《당에서 전력생산문제도 그토록 마음쓰고있는데 우리가 힘껏 탄광을 지원하겠으니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달라.》고 고무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자재와 설비,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어 석탄생산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평안북도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는 김춘국, 라성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투철한 수령경사용위정신을 지니고 철도를 적극 도와주고있다. 그들은 매일 첫주 일요일을 철도지원의 날로 정하고 10년간 70여차례 걸쳐 신의주철길대에 많은 철길고착작과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어 철길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승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정주시 서주동 9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최충호로인은 10여년간 애국의 마음을 안고 80여정보의 산에 밤나무림을 조성하였다. 정주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로보장을 받은 그는 고향산천에 밤나무들이 더욱 우거지게 하리라 결심하고 이약하게 노력하였으며 올해만도 61의 밤을 수확하여 시사회공양당과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성천군 백원포전립협동농작업반장 리금옥동무는 지난 25년간 160여마리의 부림소를 길러 다른 작업반은 물론 다른 농장들에게 보내주어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25년 전 비탈밭이 많은 농장에서 부림소들을 많이 길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한 그는 부림소를 자기가 맡아 기르리라 결심하고 이약하게 노력하여 부림소를 배우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소들을 길러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운산군 삼산중학교 교원 리성숙동무는 17년간 학생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침으로써 학부형들과 학생들로부터 우리 선생님이라는 존경을 받고있다.

평양군인보안서 아예단위 일군인 리해동동무와 그의 안해는 통강군 읍 59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뛰어들어 돌봐주고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아예단위 일군인 김영성동무도 16년간 정칙시 총평구역 수성동 16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을 잘 돌봐주어 주민들로부터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고있다.

박금옥, 채명희, 권향숙, 박영희동무를 비롯한 평양의 안내원들도 지난 10년간 중구역 교구동 2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이밖에도 평양대흥포공작로동자 김미화, 향산군인민병원의 의사 최금단, 연산군 읍 3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최성숙, 고봉군도시경영사업소 로동자 황영태, 원산시 해방2동 5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순수, 단천시제1인민위원회 과장 김춘사, 함주군 로동중학교 교원 김춘애, 김책시건설공작로동자 허충학, 운송중립로기사업소 지반인 김경식, 함흥철도병원 의사 한재형, 원산철도분구 김미영, 평해지명원 강영희, 평양청년리력개발차승무대 승무화물원 연영민 등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해방2동 58인민반의 깨끗한 충성심을 바치고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속에서 인민의 생명체들을 구원하고 사회주의대건설장들을 힘있게 지원하는데 사활을 걸고있는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교수안장성에 큰 힘을 넣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학교들에서는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넓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는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온천군 해운중학교 교장 박만성 동무와 학교일군들이다.

어려 파곡의 교수방법을 끝낸 어느날 교장은 자기 방에서 쓴 생각에 잠겼다. 실력이 없게 되고 인성도 있는 것들이 수업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나치기는 교육자로서의 향상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매 교원들의 교수안을 다시 한번 간간히 검토해보고 시작했다. 경성했다고 하는 교수안에서도 놓고도 넘어간 문제점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이 각이하가 때문에 엉망 하나를 지식을 가르치는데도 여러가지 실례들이 언급되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김용주 재일조선청년동맹 중앙사업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철의 공헌을 하신 경모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효모의 마음담아 진정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지고서 인사를 드려드리었다.

《살의 글자와 보람은 결코 자기만 할 먹고 잘 입고 향락 누리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창조와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전진하며 승리해가는 선군혁명이다. 이 철로의 중심에 새긴 각지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를 원호하는것은 동민의 첫째가는 본분으로, 도덕의리로 여기고 이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다.

그러한 사람들속에는 보통구역 붉은거리 2동에서 살고있는 정형철동무도 있다. 인생체험을 통하여 총대가 굳건해야 나라도 강대할 것이라는 것을 체득한 그는 자기 생활의 첫머리에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놓고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하여왔다.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

순결한 공민적양심을 바쳐

하여

하여 철리방선초소에 보내준 소행이 날로 꽃피어가고있다. 온산군 순화농장 농장원 최은혜, 삼현군 달천휴식사 로동자 최영희, 사리원시 미곡중학교 교원 리영희, 신흥군직공공로동자 김윤희동무들이 바로 그런 훌륭한 새 세대들이다.

온산군 순화농장 농장원 최은혜동무는 지난 가을 순천사에서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을 알게 되었다. 조국보위를 사려로운 겉에서 위기일발의 순간 자기 한몸을 주저없이 내대던 영예군인의 높은 정신세계에 깊이 감동된 최은혜동무는 그와 같은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것은 우리 시대 처녀로서 지닐 수 있는 행복이고 영예이라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자기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들은 당의 품속에 교양육성된 새 세대라고 하면서 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소행들이 적극 발휘되고있다.

선진시대 공로자인 문덕권원로기지사사업소 지반인 정영삼동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호이이 리이동지가 9일 월남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회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가 참가하였다.

호이이동주와 김영일동지께서는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황주군 신상협동농장

부조장 김광속동무

황주군 신상협동농장은 남새농사를 잘히기로 소문이 났다. 본조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해마다 중요한 남새작황을 절취하는데는 16년간을 이 본조에서 본조장사업을 해오고있는 김광속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10여년전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황주읍에서 신상리쪽으로 뻗은 길가로 걸음을 다그치고있는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어느 한 군에 두말농사에 좋은 우량 품종의 남새종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특명전대사가 호상 판시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특명전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라오스방문기간 대표단은 루앙프라방주에 있는 민족박물관, 련사유적 등을 참관하였으며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회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8일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본 일군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는 심정으로 원군사업을 통이 크게 벌렸다. 종업원들과 함께 원군에 순결한 양심을 새겨가고있다.

처녀시절을 총대와 함께 보낸 김미영동무는 인민군대에 제대하고 남다른 가정에서 후배를 위한 심정으로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는 초소의 자식들을 생각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월남공산당 대표단

회담 진행

《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월남공산당 대표단의 회담이 9일에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월남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회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8일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본 일군들과

조선로동당 대표단 하노이 도착

《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회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8일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본 일군들과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혁신자들의 열렬마다에 기쁨 넘친다. —동태원에국립직물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